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11호

2019.08.30.(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결국 의견접근 실패

보쉬자본 끝까지 총고용 보장 거부

지부교섭 의견접근 못해

29일(목)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11차 지부교섭이 결국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지난주 중앙교섭이 타결되고 지부교섭도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종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추석 전 타결을 통해 조합원들이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지만, 사측은 끝까지 역지를 부렸다.

보쉬자본, 고용안정 약속 못하겠다!

이날 교섭에서 지부 요구안 7개 중 6개는 의견 접근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

- ①임금인상 : 2018년 기본급 대비 상향(호봉 승급분 제외).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진행.
- ②일터괴롭힘 금지 : 중앙교섭과 동일
- ③고용보장 : 의견접근 실패
- ④간부 유급교육시간 : 8시간 인정
- ⑤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 SNS 및 전화 등으로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부득이한 경우 각사별로 노사협의.
- ⑥정년연장 : 요구 철회
- ⑦회사 내 식당 개선 : GMO(유전자조작식품)

사용 제한. 식재료 세부사항 분기별로 공유.

그러나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서 보쉬자본이 거부하면서 최종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총고용을 보장하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단협에 의거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했지만, 보쉬자본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보쉬자본은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이날까지 논의된 내용을 별도 회의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지부 쟁의권 갖고 간다!

보쉬자본의 고용보장 거부로 지부교섭 의견접근이 안되면서 지회 교섭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다. 지부는 9/2(월) 지부 운영위를 통해서 이후 교섭과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고용안정 쟁취 투쟁은 지회 교섭을 통해 관철되도록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쉬자본의 거부로 지부는 쟁의권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거부한 지역 사용자들이 자초한 일이다. 지부는 쟁의권을 활용해 지부교섭이 원만히 합의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11차 교섭 속기록

지부교섭 쟁의권 살아있다!

노 : 오늘 타결했으면 좋겠다. 인사말은 이걸로 끝내겠다.

사 : 알다시피 오늘 교섭 장소가 JCC였는데 오늘 한 온에서 해야 타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회의장에서 사전에 교육 있었는데 양해 구해서 자리 마련했다. 지부장 의견과 같다. 오늘 마무리 지어야 지회도 추석 전에 마무리할 수 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노 : 수정안 있나?

사 : 지난주 축소교섭에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 일부 반영해서 안 마련했다. 보시고 의견달라. 일터괴롭힘은 중앙교섭 합의안과 동일하고, 고용보장은 조합 기대에 조금 못미칠 수 있다. 조합간부 교육 내용 중 단서조항은 뺐다.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도 축소교섭 내용 반영했다.

노 : 잠깐 정회하자.

〈15:04 정회〉

〈축소교섭 진행〉

〈17:35 속개〉

노 : 정말 올해 교섭 힘들다. 지부교섭이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어서 방법을 찾아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안되고 어렵다. 축소교섭에서 얘기한 것처럼 별도 회의록으로 남기고 가자. 고용보장 관련해서는 한개 회사가 수용하지 못해서 지회에서 별도로 교섭해서 풀 방법을 찾겠다. 지회에서 논의 다되면 전체 모여서 의견접근하자. 회의록 작성해왔으니 서명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쟁의권 살아있는 거다. 지회 임금인상은 차질 없도록 조치할테니 지회에서는 임금교섭은 잘 합의해서 조합원들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차기 교섭은 실무 통해서 연락하겠다.

사회 : 회의록 작성은 양측이 동의했고, 미진한 부분 더 논의되면 차기교섭 개최를 실무에서 논의하겠다.